

‘노출패션’ 여대생의 이중의식

“성폭력 부추긴다”면서 “배꼽티 괜찮아”

96.64

노형석 기자

신체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여대생들이 실제로 성희롱을 종종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〈한국대학신문〉(발행인 홍남석)이 지난달 20~28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7개 대학 여학생 4백13명을 상대로 실시한 ‘대학가 노출패션에 대한 설문조사’에 따르면 응답자중 16%가 노출로 인한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, 남녀공학대가 18.85%로 여대의 13.2%보다 빈도가 높았다.

성희롱의 형태로는 언어가 58.1%, 신체접촉이 33.9%로 나타났다.

여대생들은 이와 함께 79.1%가 심한 노출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부추긴다고 응답했으며, 이런 반응은 남녀공학대(77.9%)보다 여대(81.1%)에서, 고학년(76%)보다 저학년(85.2%)에서 더욱 높았다.

반면 최근 여대생 옷차림의 신체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81.1%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미니스커트, 배꼽티 등의 의상에 대해서도 83.2%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.